

美,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 문건 유출

100쪽 이르는 문건 언론 보도 美 압박 우크라 포탄 제공 놓고 한국 대통령실 대화 내용 포함 러시아·中 등 정보망 침투 정황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도·감청 해온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 온라인에 유포된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의 기밀문서를 통해서다. 특히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무차별 정보 수집 폭로 이후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한 도·감청 중단 약속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보안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부차관 등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 내용도 유출된 문건에 포함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폴리티코,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소셜미디어에 언급된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사례뿐 아니라 중요한 동맹 등에 대해 이뤄진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eavesdropping) 정황이 담겨 있다.

NYT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합동정보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문건은 사상 잡지 등으로 보이는 배경 위에 올려져 촬영된 사진의 형태로 이달 초 온라인에 확산했는데, 이를 분석한 전직 관리들은 유출자가

기밀 브리핑 자료를 접어 주머니에 넣은 다음 안전 한 장소에서 꺼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측했다.

이 문건은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4chan' 등에 유포된 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문건에는 최소 두 대목이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

이 전 비서관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려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NYT는 문건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미국 정보당국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그트'(SIGINT·신호 정보)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26일)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을 대상으로 한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정보수집의 장소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국내로 보인다는 점 뿐 아니라 원칙을 깨고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문건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영국 등 우방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의 국내 문체와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NYT는 이와 함께 2월 초중순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급 인사들이 베냐민 내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개편안에 항의하는 자국 관리들과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 국방부 등에 대한 도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계획과 전쟁수행 능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평가하는 등 러시아의 내부 정보보양에도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담겨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뿐 아니라 중동과 중국 문제, 북한 핵 관련 진행상황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유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심마저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문건 유출 사태로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NYT에 "유출된 문건은 일부 원본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도 있지만 합법적인 정보 수집물과 국방부 합참 등의 브리핑 내용"이라고 확인하면서도 "하지만 이 문건이 진본이라고 해도 정보가 모두 맞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2층 중앙 '강복의 발코니'에서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 메시지 낭독과 강복을 하고서 운집해 있는 가톨릭 신자와 순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황 부활절 메시지...“러시아 국민에도 빛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현지시간)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종식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부활절 야외 미사를 집전한 뒤 강복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에 앞서 낭독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낭독과 강복은 성 베드로 대성당 2층 중앙 '강복의 발코니'에서 이뤄졌다.

교황은 이날 부활절 메시지에서 "평화를 향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정을 도와주시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부활절의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시고, 포로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이 전쟁과 세상의 모든 분쟁과 유혈 사태를 종식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 전체의 마음을 열어주소서"라고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거의 모든 공개 석상에서 전쟁을 규탄하며 평화를 촉구해왔다.

교황은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삼갔지만 점차 '침략'과 '잔학 행위'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러시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부활절 메시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교황은 최근 격화된 이스라엘 당국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뒤 정치·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튀니지·아이티·에티오피아·남수단·미얀마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연합뉴스

한국·캐나다·필리핀 등 기준금리 동결 전망 잇따라

한국과 캐나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자체 조사한 결과, 16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15명이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지난 2021년 8월 긴축에 들어간 이후 첫 2번 연속 금리 동결"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무역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수출주도 경제를 가진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واف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향후 12개월 안에 적어도 한 번, 향후 2년 안에 적어도 두 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마르세유 4층 건물 붕괴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중심부 구시가지에 있는 4층 건물이 폭발음과 함께 무너졌다. 이 건물이 붕괴하면서 벽을 맞댄 양쪽 옆 건물도 함께 부서져 5명 이상이 다치고 최대 10명이 매몰됐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은 붕괴한 건물 잔해에서 매몰자를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연합뉴스

中, 군용기 70대 투입 '대만포위' 무력시위

중국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인 9일 대만 해협에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만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Su-30 전투기와 H-6 폭격기 등 군용기 70대와 군함 1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만군은 관련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특히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대만 동부 해역에 미사일을 쏘아부은 점을 고려한 듯 중국로켓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훈련 첫날인 8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71대와 군함 9척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투기인 Su-30 8대, J-11 4대, J-10 16대, J-16 10대 등 군용기 45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서남부 공역에 진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중국군의 무력시위 규모는 대만 국방부가 전날 오후 4시까지 집계한 것과 같은 규모로, 아간에는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작년 8월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이 선 너머로 군용기와 군함을 상시로 파견해왔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응해 8~10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